

베트남 중부서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출처 : 연합뉴스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베트남에서 재발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농업농촌개발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중부 닥락 성에서 1천300여 마리의 오리알이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고 지난 11월 30일 보도했다.

AI에 감염된 오리알은 전량 도살처분과 폐기됐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지난 7월 중부 팜찌 성과 북부 푸토 성에서 AI가 보고된 이후 4개월여 만에 재발했다.

방역 당국은 닥락 성에서 AI가 재발하자 인근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로는 2003년 이래 베트남의 AI 사망자는 59명으로, 인도네시아의 13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일 농업부를 인용해 보도했다.

농업부는 지난 12월 2일 라싸 시의 한 마을에서 AI가 발생했으며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농업부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의 출입을 막고 부근 농장의 가금류 1천575마리를 도살처분했다고 덧붙였다.

Product

홍콩, 또 AI 공포

출처 : 동아일보

홍콩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 H5N1이 발견돼 홍콩당국이 지난 12월 21일 1만7000여 마리의 닭을 도살처분하고 3주 동안 모든 생닭 거래와 중국으로부터의 생닭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

홍콩 정부는 AI 위험 수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의 진원지를 추적 중이다.

中 티베트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출처 : 연합뉴스

중국 시짱(西藏, 티베트)자치구 라싸(拉薩)시에서 H5N1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금류 290마리가 죽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12월 13

